

도의회 교육위, 행감·예산안 심사 돌입

12월 13일까지 진행... 학교폭력 학생자살·학생성추행 교사자살, 학교비정규직 문제 등 다뤄질 예정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8일부터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해,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

교육위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시군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8일간 실시하고, 2018년도 예산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례회에 발의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 ▲만성초등학교 교실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꼼꼼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로 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자살과 부안여고 교사에 의한 학생성추행 문제,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9~10일은 교육위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또한, 13일 오전에는 전주교육청과 함께 군산·부안·김제·완주, 오후에 익산·남원·정읍·고창·임실·순창·진안·무주·장수 등 14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꼼꼼히 행감을 진행한다.

14일 오전에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 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 오후에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전북학생교육원·전북학생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 등 12개 직속기관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은 전라북도교육청과 미진업무기관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일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박재만 원내대표 "군산·진안·남원의료원에 달빛어린이병원·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평일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도내 공공의료기관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군산)는 8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군산·남원·진안의료원에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젊은 세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무산설까지 가세해 의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태에 더 차선책으로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도내 387명에 이르는 공공보건의 중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도내 군산·남원·진안의료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조장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하면 전북도가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군산·남원·진안의료원에 예산을 투자해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면 산모들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박재만 의원

최명철 의원, "대한방직 매각시 근로자 고용·생존권 보장하라"

대한방직 전주공장이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고용·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도의원(전주4·국민의당)은 8일, 전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근로자와는 한마디 협의 없이 한 평생 몸담아 온 직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 계약 등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한방직 전주공장 150여명의 근로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회사의 방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매각 과정에서 직원 생존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전주공장 이전 시 첨단화된 자동차 설비로 인해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공장 매각시 부당한 인사와 해고가 없도록 전 직원 고용보장을 위해 전북도 행정의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1974년 들어선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최근 전주공장 터를 1,980억 원에 매각했다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김진성 기자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 연설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촉구

"핵, 북한 체제 심각한 위협에 빠트려... 우리는 너은 미래 제공할 준비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당신이 획득하는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체제를 심각한 위협에 빠트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한반도에 북한 독재체제 지도자에게 직접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어두운 길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이 직면할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북한은 당신 할아버지(김일성 주석)가 그러던 낙원이 아니다. 그 누구도

가선 안 되는 지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당신이 지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시 출구를 제시할 의향이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를 바라보면 눈신 빛이 남쪽에 가득하고 뿜을 수 없는 어두운 덩어리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빛과 번영의 평화의 미래를

원한다. 이같은 우리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우"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악한 체제는 한 가지는 맞게 보고 있다. 바로 한민족의 운명은 영광스럽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다. 한민족의 운명은 억압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에 미국 항공모함 3척과 핵잠수함을 전개한 사실을 공개한 뒤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스

장명식, 고창 원전피해 더 심각... 지방세 납부 추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명식(고창2) 위원장이 지역구인 고창이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가 크지만, 지방세는 고창에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8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창 어민들은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보상 금액이 전남 영광보다 4배 많고,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송전탑도 영광보다 많으며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장명식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로 고창주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발전소 행정구역이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2016년 기준 605억원의 지방세를 모두 전남도와 영광군이 차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한 지방세가 3,310억 원이나 되지만, 고창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불합리한 지방세 독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지원시설세를 해당 행정구역에만 납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내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명식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은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인근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 온배수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고창에 단 한푼의 지방세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국회에 관련 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장명식 의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갤러리 S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의 만남 -10.28(토) 호암 준영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갤러리 R (로비)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아외전시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용전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